

# 트렌드지, “아프니까 청춘이다”

6개월 만의 컴백...청춘의 열정 콘셉트  
“한계에도 끝까지 나만의 길 가겠다”  
퍼포먼스 해외 인기...월드투어 앞뒤  
국내 인지도 속제 “무대로 증명할 것”



보이그룹 '트렌드지(TRENDZ)'는 청춘을 노래한다. 'Z세대 트렌드의 주역이 되겠다'는 팀명의 포부처럼,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춘의 마음을 대변한다. 청춘의 찬란함만 그리진 않는다. 데뷔 때 이어온 '블루 셋(BLUE SET)' 시리즈는 혼란과 혼돈 속에서 탈출해 자아를 찾아 나서는 이들의 이야기였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빠져나온 이후 이야기는 청춘의 젊음과 열정으로 가득하다. 줄곧 어두웠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밝고 맑고 푸르다. 아직 자신을 하나로 규정짓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가겠다는 멤버들의 단단한 의지와 각오가 담겼다. 트렌드지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곡이기도 하다. 지난해 1월 데뷔한 이래 세 장의 앨범을 발표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대중에게 명확한 색깔을 각인시킨 건 아니다.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이런 느낌의 곡을 내다보면 트렌드지 자체가 장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노래 트렌드지 느낌인데? 이런 거요. 확실히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만의 색깔이 한층 더 짙어지는

게기가 될 거예요."(한국)  
그간 트렌드지는 작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청춘의 이야기를 했다. 멤버들끼리 대화하면서 누구의 목소리가 어울리는지 파트를 정하는 등 함께 곡의 구성을 만들기도 했다. 그 중심에는 라엘이 있었다. "멤버들끼리 키워드나 아이디어를 서로 던져줘요. 이번에는 제가 키워드를 제시하기 보다, 이미 정해진 상태였고요. 대부분의 키워드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불도저' 같은 단어였어요. 대신 이전 활동을 모니터링하면서 전체적인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데'라는 말보다 '어떤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라엘)  
앨범의 밑그림을 그리는 게 라엘이라면, 퍼포먼스로 화룡점정을 찍는 멤버는 리온이다. 이번에는 청춘의 자유라는 주제로 날개를 포인트로 잡았다. 리온은 "곡 중간중간에 날개가 형상화되는 게 있다. 포인트 안무 자체가 날개를 펼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봐 달라"고 했다. "이번에도 소화력 만점이에요. 저희가 매 컴백마다 콘셉트가 겹쳤던 게 없었거든요. 그 와중에 우리 멤버들은 다 소화했죠. '마이 웨이'에서는 달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7명 모두 한창 청춘이니까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라엘)  
트렌드지가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건 퍼포먼스 덕분이다. 트랜

드지는 멤버를 공중으로 들거나, 날리는 등 퍼포먼스로 '짐승돌'이라는 수식어를 얻은 그룹 '2PM'의 전성기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다음 달부터는 아시아를 시작으로 미주, 유럽과 아프리카의 20개국에서 투어를 진행한다. "비교적 해외 팬들이 저희 퍼포먼스를 좋아해 주세요. 시각적으로 자극이 될 만한 퍼포먼스가 많아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윤우)  
"퍼포먼스를 하려면 기본기가 바탕이 되어야 하거든요. 다 같이 오랜 기간 연습하면서 혹독한 체력 훈련까지 했어요. 하루에 비피 운동 300~400개씩을 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덕분에 빠른 시간 내에 퍼포먼스를 소화해 내는 편이에요. 퍼포먼스는 어딜 가나 자신 있어요."(리온)  
트렌드지가 롤 모델로 삼는 가수는 퍼포먼스가 강점인면서 음악적 색깔까지 뚜렷한 그룹이다. 이들은 그룹 '세븐틴'과 '스트레이 키즈'를 언급하며 "선배님들의 노래는 듣자마자 딱 알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그룹의 정체성을 정해주는 것 같아 닮고 싶다"고 했다. "연습생 때부터 세븐틴 선배님의 '히트(HIT)' 커버 연습을 많이 했어요. 한 시상식 애프터 스테이지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고요. 그 영상을 세븐틴 선배님이 보고,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영광스러웠어요."(은일)  
하나씩 트렌드지만의 색깔을 덧칠해가면서 국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길거리에서 자신들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소소한 바람부터 음악방송 1위, 단독 콘서트까지 해나갈 것들이 많다. 먼 미래를 바라보며 K팝 아이콘이 되는 장대한 목표도 세웠다. "등고할 때마다 미국 슈퍼밴드 하프타임 스테이지를 보거든요. '언젠가는 저 무대에 우리가 있었으리라'하면서요. 7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한 번쯤은 서보고 싶어요."(예찬)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선배님이 월드컵 개막식에서 무대를 했잖아요. 저희도 나중에 국가를 대표해서 무대에 서보고 싶습니다."(리온)  
언제든 목표를 세우고 어느 방향이든 달려갈 수 있는 청춘이기에 기회는 많다. 일곱 멤버가 한마음 한뜻으로 긴 호흡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끝까지 나아가자는 것이 멤버들의 모토예요. 하나로 나아가겠다는 걸 내포하죠."(은일)  
"이번에 완벽하게 준비를 한 만큼 대중과 팬들에게 무대로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우리의 길 위에는 팬들이 항상 서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행복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엘)  
뉴스스

# 김히어라, '학폭' 피해자 녹취록 터졌다



배우 김히어라(34)가 학교 폭력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녹취록이 공개됐다. 9일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김히어라의 중학교 동창인 H씨와 김히어라가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디스패치는 9일 김히어라와 중학교 동창 H씨가 나눈 통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H씨는 김히어라의 학폭 피해자다. 김히어라는 디스패치의 주선으로 지난 5월 제보자 A·B·C·D 씨를 만나 사과했다. 학폭 제보를 막기 위해 부지런히 강원도 원주를 방문했으며 E·F·G·H씨도 수소문했다. E·F·G씨는 최종적으로 만나 사과했지만, H씨는 끝내 만나지 못했다. H씨가 김히어라와의 만남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디스패치는 전했다. 김히어라는 소속사가 반박 입장문을 발표한 뒤인 지난 8일 H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히어라는 "따린 건 인정하고"란 H씨의 말에 "미안해. 많이"라고 대답했다. 김히어라는 한 번 만나줄 수 있는지 부탁했지만, H씨는 "내가 널 안 만나고 기다린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왜 만나야 되는데?"라며 거절했다. 김히어라가 "내가 나한테 원하는 게 인정이야?"라고 묻자 H씨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히어라는 "그러면 내가 인정할게. 그런데 제보를 하면 너네 신상까지 털린다"고 말했다. H씨는 "아니야, 우리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야. 우리 신상? 그게 왜? 우리가 죄 지은 거 아니잖아. 네가 죄지는 거지"라고 했다.

김히어라와 동갑인 H씨는 1학년때 친하게 지냈다가 2학년 때부터 엇갈렸다. H씨는 김히어라에게 폭행 당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H씨는 "노래방에서 불러서 때리고, 바깥에서 때리고 너는 맨날 나만 괴롭혔다"고 했다. 또 H씨는 "너 폭언 폭행 안 했었냐? 강력 대응할 거냐?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너 담당하냐?"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학교폭력이나 일진행동이라는 생각에 동의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이 담긴 김히어라의 입장문에 분노했다. 아울러 H씨는 "내가 일을 보러 가고 있었어. 너는 'XX년야, 빨리 안오면 F랑 G 때려버린다'고 했지. 난 그때를 기억해. 비오는 날, 00중 골목으로 기억해. 그날 F를 코피날 때까지 때렸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히어라는 "내가?"라고 답했다. H씨는 "내가 너 학폭 터질 줄 알았거든. 기다렸어, 어러야. 그래서 내가 너 연락 안 받고 안 만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디스패치는 김히어라가 강원 원주의 모 중학교 재학 당시 일진 모임인 '빅상지' 멤버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빅상지'는 갈취·폭행·폭언 등으로 악명 높은 모임이다. 일부는 김히어라의 담배 심부름을 했고 돈을 빼앗기도 했다고 디스패치는 전했다. 특히 김히어라는 "폭언이나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며 "방관한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이후 김히어라 소속사 그래멘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내고 "김히어라가 상지여자중학교 재학 시절 친구들끼리 만든 빅상지라는 네이밍의 카페에 가입했고, 그 일원들과 어울렸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 외 언론사에서 보도하거나 제기한 의혹 내용에 대해서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소속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김히어라 역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히어라는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호소를 했던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솔직하고 담담하게 임하려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많은 분들께서 믿어주시는 것을 알기에 거짓 없이 나아가겠다.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 서동주 “父서세원과 10년간 연락 안해”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가 아버지 서세원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지난 9일 방송된 MBN '됐다! 캠프 킴'에 서동주와 개그맨 김병만·박성광, 배우 정일우·박은석은 뉴질랜드 '슬리퍼 아일랜드(SLIPPER ISLAND)'를 방문해 '대자연 속 파라다이스'를 만끽했다. 섬을 둘러보던 중 양을 발견한 서동주는 "제가 키우던 '클로이'라는 강아지가 양이랑 똑같이 생겼다. 털이 복슬복슬하고, 하늘에 구름이랑도 닮았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어 서동주는 "클로이는 보름 전에 하늘에 가서 이제 만져볼 수가 없다"며 클로이의 일화를 전하던 중 서세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다.



서동주는 "저희 아버지도 최근에 돌아가셨다"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 힘든 2주간의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한국에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 아버지 발인하는 날에 클로이도 같이 떠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클로이가 아버지를 지켜주러 갔다' 혹은 '아버지가 클로이를 데려갔다' 보. 외롭게 가지 않으려고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저는 마음이 반반"이라고 덧붙였다. 서동주는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마지막 거의 10년 가까이 연락을 안하고 지냈고, 사이도 안 좋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신을 찾으러 캄보디아에 갔다가 누워계신 아버지를 본 게 마지막 기억"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되게 야속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클로이도 가니까 클로이 생각을 하면 아버지 생각이 나고 아버지 생

각을 하면 클로이 생각이 난다. 피비우스의 피처럼 사람을 너무 슬프게 만든다"고 고백했다. 서동주는 "여기 와서 구름도 보고 양도 보면 서 계속 클로이 생각을 했다. 그때마다 맑은 안 했지만, 매년 아버지 생각을 안 할 수 없었다"며 서세원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사실 저는 아버지 돌아가신 걸 보는데 안 슬플 줄 알았다. 심한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 마음을 괴롭게 하니까 아빠가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슬프고 화나고 원망스럽고 야속하고 허망하고 허무하고 밋고 불쌍하고 안쓰럽고 그림프"라며 울먹였다. 아울러 "되게 그리웠다. 말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힘들었고, 그래서 더 양을 더 만져보고 보고 싶었던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서동주의 아버지인 코미디언 서세원은 지난 4월20일 캄보디아의 한 병원에서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서동주는 모친인 방송인 서정희와 서세원이 2015년 이혼한 뒤 그와 절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로 출국해 다른 유족들과 장례를 논의했다. 이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영결식에 상주로 참석해 서세원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 '아라문의 검', 이준기·신세경 손잡고 5% 출발...‘소열경2’ 9.3%로 종영

배우 이준기가 합류한 tvN 토일극 '아라문의 검'이 5%대의 시청률로 포문을 열었다. 1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님스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아라문의 검' 1회는 전국 기준 5%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날 첫 방송에는 아스달 연대기 이후 8년의 세월이 흐른 아스달의 상황이 그려졌다. 아스달 최초의 왕 '타곤'(장동건)은 아스달 내전을 모두 진압해 아스달 정벌을 위한 전쟁을 목전에 둔 상태였다. 그런 가운데 이나이신기로 밝혀진 '은섬'(이준기)과 아스달의 총군장으로 임명된 '사야'(이준기)의 운명적인 전쟁을 예고하며 긴장감이 일었다. 정태한 스케일과 화려한 액션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라문의 검'은 지난 2019년 방송된 '아스달 연대기'(시즌1)의 시즌2다. 시즌1에서 쌍둥이 형제인 은섬과 사야 역(1인 2역)을 맡았던 송중기 대신 이준기가 합류했다. 시즌1에서 '탄야'를 연기했던 김지연 대신 신세경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신세경이 맡은 탄야는 아스달의 정신적 지주인 대제관이다. 한편 비슷한 시간대에 방영된 김래원 주연의 SBS TV 금토극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 시즌 2 마지막회(12회)는 9.3%(닐슨 코리아 기준)의 자체 최고 시청률로 막을 내렸

# 아스달 연대기 이후 8년의 세월이 흐른 아스달의 상황이 그려져



다. 하지만, 이민기가 출연한 JTBC 토일극 '힘하게'는 6.6%(9회)의 시청률을 보였다. 뉴스스